



그림 : 회현초 2학년 어린이들

시

나태주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틔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군산시교육공동체에게 추천한 시

지면안내

- 02 교육장님과 함께한 군산교육 이야기
- 03 군산교육지원청 학부모기자단 스토리
- 04 전지적 학생시점으로 본 군산교육정책
- 05 이재운 교수와 함께하는 역사여행

- 06 즐거움과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 회현초
- 07 나보다 우리, 우리보다 모두를 생각하는 / 풍문초
- 08 나를 찾아가고 남을 배려하며 함께 꿈꾸는 / 제일중
- 09 한들, 넓게 트인 들판에서 자라는 꿈 / 한들고
- 10~11 군산교육지원청 학부모교육 교육후기
- 12 우리는 군청학연입니다



주광순 교육장님과 함께한

군산교육 이야기



“어서 오세요~^^”

주광순 교육장님은 밝고 환한 미소를 띠며 활기찬 목소리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

따뜻한 인사에 이어 교육장님께서 테이블 위 보물 지도처럼 돌돌 말아진 예쁜 색종이를 하나씩 뽑아 보라고 권하셨다.

설레임으로 펼쳐 본 순간 짧은 시 한편! 그러나 마치 시집 한 권을 선물 받은 듯한 특별한 감동으로 시작한 교육장님과의 인터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실 때 꼭 지켰던 원칙이 있으셨나요?

특별한 양육 원칙은 없었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자율권을 허용하는 것은 자칫 방치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타율과 자율의 경계선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지나친 관심보다 아이가 좋아하고 흥미를 갖는 것을 찾아 주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부모나 선생님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자란 아이들의 인성은 남다르다고 생각하여 자연을 최대한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고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배려심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사회를 살아 갈 우리 아이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할 때 기존 방법을 따라가기 보다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는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학교 안에서도 밖에서도 이 사회는 공동체 생활입니다. ‘나’가 아닌 ‘우리’라는 의식을 갖고 ‘협력’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업에서 나오는 힘은 혼자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성과를 가져오며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키워줘야 합니다.

셋째, 경쟁 속에서 친구를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고 어제의 나를 경쟁 상대로 인식하는 자세,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마음보다 동반성장의 의식을 갖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넷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 즉,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가정에서부터 독서 환경을 잘 만들어 준다면 바른 인성은 물론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얻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군산교육지원청이 제시한 교육비전과 지표에는 어떤 의미와 방향성을 갖고 있나요?

우리 군산교육지원청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상급기관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하여 개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삶의 역량을 갖추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희망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지표를 삼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이루기 위해 가정, 학교, 교육지원청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사, 학부모 등 어른들의 자존심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 빈번했던 징계나 훈계보다는 가정이 회복되고 학교가 회복되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배우고 실천해서 가정과 학교, 군산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야 하며 어울림이 있는 학교, 꿈을 심는 교육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우리 함께키움 군산학부모기자단 신문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학부모 기자단이 정말 순수하게 아이들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때로는 매와 같은 눈으로 학교와 교육청 사이를 오가며 소식을 전하는 사랑의 우체부 같은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의 인사말은 “사랑합니다!!”이다.

우리 군산시 아이들을 사랑하고 군산교육공동체를 사랑하는 주광순 교육장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따뜻하면서도 의미 있는 인사말, 사랑합니다!!

교육장님의 이런 마음은 교사들에게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고 사춘기 시기를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큰 버팀목이 되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질책보다는 학생들을 인정해 주는 따뜻한 말로 감동을 주고 신뢰를 쌓아가기를 바라며, 학부모들에게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바른 인성을 지닐 수 있도록 사랑으로 양육하고 좋은 습관을 몸소 보여 군산의 희망인재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신을 밝혀 주변을 더 환히 밝히는 촛불 같이 열정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 오신 주광순 교육장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군산교육지원청 “함께키움” 학부모 기자단 스토리



군산학부모기자단은 3월 14일(목)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광순) 3층 회의실에서 2019년 학부모기자단 위촉식을 가졌다. 주광순 교육장은 “군산교육은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성장하는만큼 학부모 기자들이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다양한 취재활동을 통해 군산교육의 동반자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2월 공개 모집을 통해 새롭게 선발된 학부모기자단 15명이 참석하여 위촉장과 기자증을 받았으며 이어 학부모기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추기 위한 글쓰기 교육과 취재활동에 필요한 리더십 역량 강화 연수를 4회차에 걸쳐 수료했다.

학부모기자단은 군산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 각 학교들의 생생한 활동 이야기, 자녀 교육 정보, 주변의 훈훈한 미담 등을 학부모의 입장에서 재해석하여 군산교육공동체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군산교육지원청 학부모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배우고 느낀 점을 군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학부모교육 교육 후기란에 올려 공유하고 있으며 군산 청소년 자치배움터(가칭)공청회 현장과 군청학연(군산청소년학생연합)에서 주최하는 제5회 200인 원탁회의에 학부모를 대표하여 학생인권과 교권을 주제로 한 원탁회의에 참여하여 그 생생한 현장을 취재하였다. 또 주광순 교육장님과 이재운 문화재청 부위원장님등의 명사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동우문화재단과 군산교육지원청이 후원하고 사)아리울역사문화와 학부모 기자단이 함께 주최하는 “바람별이 들려 주는 군산 이야기”역사 교육을 통해 군산시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우리 고장 군산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산학부모 기자단은 NEWmom'S(뉴맘스:맘(학부모 기자)들이 전하는 군산교육 소식)신문 창간호 발행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으며 그 결실을 7월에 맺게 되었다.

2학기에도 군산교육지원청의 교육 정책과 교육 현장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군산학부모기자단은 더 발빠르게 노력할 것이며 다양한 활동과 연수를 통해 학부모 기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자질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학부모기자단 공개모집
(1.30. ~ 2.13.)



“함께 키움” 군산학부모기자단 서각 체험 (5.2)



군산교육지원청 학부모교육 (4.4. ~ 11.21.)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
시민공청회 취재 (5.16.)



군산학부모 기자단과 함께하는
군산역사 이야기 (7.13. ~ 12.28.)



학부모 기자단 동아리 활동 SNS 활용
글쓰기 교육 (5.15. ~ 7.17.)



주광순 교육장님과의 인터뷰 (6.28.)



이재운 교수님과의 만남 (6.13.)

- 2019 함께키움 학부모 기자단 -

단장 김유정(회현초) 부단장 진현주(월명초) 총무 박순덕(지곡초)

기자 김미영(서해초) 김선애(산북초) 김영미(당북초) 송은주(회현초) 이영숙(소룡초) 이주연(미장초)

임명숙(대야초) 임채린(수송초) 오소영(중앙여고) 유정화(나운초) 최동욱(남중) 한경진(미장초)

전지적 학:생 시점 으로 본

2019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정책

회현중 박시은 학생



깨끗하고 환한 로비, 밝은 미소, 상냥한 인사, 배려 깊은 태도, 따뜻한 시선, 아기가 조용하면서도 바쁜 움직임이 있어 생동감이 넘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백설공주와 난장이들이 사는 곳일까요?? ^^ 이곳은 바로 바로!! 군산 교육의 메카 군산교육지원청입니다! ^^

이곳은 교육천사들이 일하는 곳인데요!

지적인 아름다움과 따뜻한 리더십을 갖춘 주광순 교육장님과 3인 3색~!! 젠틀함, 호탕함, 섬세한 카리스마를 지니신 교육지원과, 생활교육과, 행정지원과 과장님들이 계시구요, 열정적이고 개성 넘치시는 장학사님들, 학교, 학생, 학부모들과의 소통과 섬세한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주무관님들, 그리고 인성과 지성을 두루 갖춘 Wee센터를 비롯한 각센터 전문상담교사님들, 팀장님들과 선생님들, 또 청사 쾌적함을 담당해 주시는 환경생들도 계신 곳이라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도대체 이 곳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펼치고 계시는 걸까요??

자!! 저와 함께 가 보시죠~!! GO GO~!!

2019년 3월 2일~!!

각 학교 신입생들의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좀더 행복하게 해 줄까?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관심으로 군산교육지원청의 2019년 도의 업무는 시작 됐다고 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는 엄마 마음 같죠~ ^^

매월 진행되는 그 많은 업무들은 군산시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각과의 “협력”으로 진행되며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냐구요?? 교육지원청에 자주 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

자 그럼 오늘은 “어울림이 있는 학교 꿈을 심는 군산교육공동체” 군산교육지원청에서 2019년 정성스럽게 준비한 교육정책은 무엇인지 한 번 알아 볼까요?? 아는 것이 힘이니깐요~ ^^

첫 번째 정책은 청소년을 위한 놀이, 청소년자치 배움터(가칭)를 마련했다고 해요~!! 대박!!

이 자치 배움터 교실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고 놀이 공간 디자인을 위해서는 각 과정에 참여하여 학교마다 특색 있는 놀이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근두근 설레지 말입니다!! 이 공간은 (구)월명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학생 자치의 구현을 위한 배움터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우리 군산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활동을 통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데 일조를 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정책은 군산교육지원청 특색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과거를 걸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군산 근대 문화유산교육입니다. 이 교육정책은 군산 근대 역사 바로 알아 바람직한 역사인식 형성하고 군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근대문화유산교육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군산을 알아야 나를 알고 바로 세울 수 있겠죠~!!

세 번째 정책은 혁신교육특구 사업인데요, 혁신교육특구 사업은 학교와 마을, 교사와 지역주민,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꿈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교육 신뢰성을 높이고 싶다고 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군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올려진 내용을 꼭 한번 살펴보세요~!!

네 번째 정책은 “열리고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유학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내 마을과 기관, 사람이 열려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가 열리기를 소망하는 군산교육지원청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진로,직업 체험이 형식

적인 체험이 아닌 ‘의미 있는 체험’으로 정착이 되고 학생 개인의 미래를 위한 진로 교육으로 의식이 전환 되기를 소망 해 봅니다~ ^^

다섯 번째 정책은 “작은학교 희망찾기” 사업이 예요. 군산 중학구(학교군)를 조정해서 나지역 5개교(회현중 제외)에 가지역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는 통학의 문제를 통학비 지원을 통해 농어촌 원도심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네요 또 원도심, 어울림학교의 성장을 돕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특색있는 교육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산 교육의 또 다른 희망!! “군산 수업동행”을 소개 할게요. 처음 들어 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군산수업동행은 학생의 참학력 신장을 목적으로 배움 중심의 수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군산 지역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지속적인 연구와 나눔 활동을 말한다 하네요. 예를 들면 수업관련 컨설팅, 동아리활동, 맞춤형 연수, 사례 공유, 나눔 마당등이 있대요. 한 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과 학교 밖에서 따로 만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배움을 즐겁게 맛보게 해 줄까? 하는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 다른 지역 선생님들 보다는 더 큰 사랑으로 우리 군산 선생님들께서는 개인의 금같은 시간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할애하고 계시네요. 선생님들 자녀들과의 함께 하는 시간을 즐겨가면서요. 정말 정말 감사하죠?

이렇게 2019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정책 중 주요 정책들을 알아 봤는데요 여러분들 한눈에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 볼게요~!!

이 정책만큼은 우리 모두 꼭 기억하기로 해요 취재를 한 저에게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동안 여러분이 높기만 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군산교육지원청을 이제 여러분의 눈높이로 봐 주시고 더 친근하게 느끼시길 바래요~ ^^

군산교육지원청은 우리와 소통하고 협력하고 지원할 준비가 이미 짙짙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번 교육지원청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군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일주일에 한 번 방문을 강추 하겠습니다~ ^^

1 청소년을 위한 놀이, 자치배움터 마련

청소년 놀이 공간 확보를 통한 놀 권리 보장

-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우호적 놀이공간 확보
- ▶ 놀이 공간을 활용한 놀이시간 확보 및 놀이문화 확산

2 과거를 걸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군산근대문화유산교육

- ▶ 군산 근대 역사 바로 알기를 통한 바람직한 역사인식 형성
- ▶ 군산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근대문화유산교육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애향심 고취

3 혁신교육특구

- ▶ 학교와 마을, 교사와 지역주민,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 구축
- ▶ 우리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교육 신뢰성 제고

4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 진학, 직업교육

-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역량 강화
- ▶ 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진학, 직업교육 강화

5 작은 학교 희망 찾기

꿈꾸며 성장하는 농어촌 원도심학교 지원

- ▶ 지역 간, 학교 간,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 ▶ 지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제를 통한 농어촌 원도심 학교 학생의 행복 증진



은방울꽃을 닮은 이재운 교수와 함께 하는 역사 여행

똑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은방울 꽃향이 은은하게 풍겨 온다. 군산학부모기자단(*함께키움)이 이재운 교수님을 만나려고 찾아 온 이곳은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의 연구실이다.

여리고 청초한 모습이 마치 흰 은방울 꽃을 닮은 이재운 교수는 외모 뿐만 아니라 그 내면까지도 은방울꽃과 닮은 것 같다. '희망.순결.섬세함.틀림없이 행복해집니다'라는 꽃말을 지닌 은방울 꽃은 이재운 교수를 표현하는데 한 점 부족함이 없었다. 명품 향수의 원료에도 쓰인다는 은방울 꽃 향기를 그려 보며 이제 이재운호 타임머신을 타고 어 린시절로 떠나보자~



어린 시절 이재운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릴 적 이재운은 어린양도 많고 때도 많은 아이였어요. 또 소품을 가면 보물찾기를 하죠? 친구들은 나무 밑, 돌 밑에서 잘도 찾는데 전 단 한 번도 보물을 찾은 적이 없었어요 어린 시절 이재운은 이렇게 욕심 없고 운도 따르지 않는 아이였어요. 친구들과 뽑기를 해도 '또'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깨우치게 되요 야! 나는 절대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인가보다. 나는 나 스스로 노력한 만큼만 보상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 깨달음이 있는 후부터는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다행히 노력한 만큼은 꼭 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노력한 이상으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가치보다 더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과 사적분과 위원장에 위촉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교수님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사적분과 위원으로는 2년 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대한민국 사적의 총 책임자가 되었습니다.어떻게 해야 사적의 아름다운 가치를 보여주고, 미래에까지 전승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아직 국가 유산으로 지정 받지 못한 사적을 발굴하기 위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문화재 중에도 국가 사적으로 손색 없는 다채로운 문화재를 발굴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문화재와 관련한 일도 하시고 전라도 1000년사 편찬 위원회 위원장과 동학재단 등 다양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업은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입니 다. 여기 책장에 놓인 '미소 천사상'은 학생들이 준 상입니까?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서는 어떤 모습인가요?

네. 우리 전주대 학생들이 준 상입니다. 웃는 모습이 예쁘다고 준 상인데요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저를 무서워 합니다 ^^ 그런데 또 제 앞에서는 학생들이 무장해제가 된다고도 해요. 대학생도 때로 미성숙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상담사 역할을 합니다. 주로 관계에서 벌어진 일인데 최대한 양 쪽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보듬어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때 학생들이 닫혀 있던 마음을 열고 저에게 어린시절 이야기부터 이번 일의 문제들을 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 뒤로 본인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들을 하구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사랑스럽고 교수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군산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전 우리 군산시 학생들이 항상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품고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정진해 나아가면 어떤 환경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고 가는 곳마다 빛이 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꿈을 실현해 본 사람은 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더 원대한 꿈도 꿀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최강국이었던 나라들이 왜 쇠락 했는지 살펴 보면 강성하게 된 이후에 교만해져서 꿈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꿈을 상실해서 나태해지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꿈을 꾸세요.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세요 또 군산시교육지원청이 지향하는 교육비전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희망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군산시 학생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학생들을 사랑하며 역사가 왜 큰 자산이고 힘이 되는지 가르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노력을 더 할 것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문화 강국으로 만드는데 헌신하고 싶습니다. 또 대한민국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직업군이 많지만 그 중에 특히 공무원들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부 특강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비중을 두고 하고 싶습니다.또 이번 군산교육지원청 역사교육에서 만난 군산시 학부모님들의 역사의식 수준도 상당히 높다고 느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교육에 몰입하고 호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학부모 교육에도 힘을 다하고 싶습니다.

어릴 적 소품을 가면 보물을 단 한번도 찾은 적이 없었던 한 아이는 운이 없다고 삶을 포기 하기보다는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 왔으며 그 하루는 그의 삶이 되고 그 삶은 이재운 교수의 역사가 되었다.

참으로 열심히 살았음에도 노력에 비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겸손함을 잃지 않은 이재운 교수는 은방울꽃의 꽃말처럼 꿈과 희망을 세상 널리 퍼뜨리는 따뜻한 휴머니스트로 또 우리 민족과 역사를 사랑하는 열정적인 역사학자로 오늘도 후대에게 본이 되는 역사를 써 나가고 있다.

만나면 틀림 없이 행복해지는 이재운 교수님을 만나고...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학교, 회현초를 말한다.

10년전 입학생이 1명에 불과했고 재학생 수가 줄어들어 위기를 맞이했던 학교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로 불리게 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혁신학교를 먼저 시작한 회현초의 변화는 회현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회현중처럼 회현초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님과 교사들의 움직임이 일어 2013년에 혁신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2012년과 2013년만 해도 회현중을 보내기 위한 중간다리역할로 회현초를 선택하는 일이 많아 5,6학년 학생수가 급증하여 많은 우려와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매년 입학생이 두 개 반으로 편성 될 정도로 회현초만의 교육과정을 믿고 함께하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의 수가 더욱 늘고 있다. 회현초의 이러한 성장은 아이들의 성장만이 아닌, 교사의 성장, 학부모의 성장,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성장을 가져오고 있다. 회현초는 현재도 성장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 할 것이다.

< 교육과정에 아이들의 삶을 담다 >

회현초 교육과정에는 아이들의 삶이 담겨있다. 아이들이 살아가고 커가는 마을에 대한 교육을 비롯하여 수업과 삶을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숫자 1을 '세상에서 하나인거 찾기'등을 통해 나와 내 주변을 둘러보는 수업으로 이어가고, 텃밭가꾸기에서 수확한 감자를 마을 장터에 나가 팔아보며 경제교육과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등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미술 수업을 '생활에 미술을 더하다'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공간을 아이들의 아이디어로 재미있게 표현해 보며, 학교에 대한 애정과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움·성취감을 느끼도록 수업을 이어가기도 한다.

다음은 아이들의 삶을 담은 마을교육과정 이야기다. 아이들은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학교는 마을 안에 있다. 마을로부터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나와 우리, 학교와 마을을 잇는 여행, 부부리 마을 탐험(부부리: 백제시대의 회현면 이름)'을 마을 교육과정에 담았다. 마을교육을 하며 아이들이 살아가는 곳과 배우는 것을 직접 관련지음으로써 진정한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아이들이 마을 소개 책을 직접 쓰고 그림을 그리며 손글씨로 꼭꼭 눌러 쓴 '부부리마을 소개책'은 마을에 있는 기관과 학교 등, 우리 마을을 알리고자 하는 곳에 기부될 예정이다.



< 학부모, 학교와 함께 성장하다. >

회현초의 혁신을 기대하는 바람은 7년전 학부모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라는 부모님들의 생각이 회현초 교육과정에 녹아들었다.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학부모 독서동아리(사랑수BOOK)부모님들은 아이들과 책을 통해 만난다. 벌써 9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것을 넘어 정기적으로 그림책 강사님을 모시고 연수도 받으며 그림책 이야기를 나눈다. 처음 만남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으나 아이들과 제대로 만나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좋은 연수를 듣고 함께 나누는 활동으로 이어져 학부모의 성장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7년째 매월 모임을 가지며 책을 읽고 토론하며 생각을 나누는 독서토론 동아리(좋은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학부모들의 성장이 아이들 독서교육과 연계되어 매년 '가을밤 독서캠프'를 운영하며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있으며, 2015년부터 '사람이 책이 되는 진로교육'을 학부모회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사람 사는 이야기'를 "사람 책을 통해 해마다 전해오고 있다. 아버지들이 주축이 되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따공(따뜻한 공간 만들기)" 목공동아리가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어 벤치, 트리하우스, 쉼터 등이 만들며 학교 곳곳에 따뜻한 손길이 전하고 있다.

학부모님들의 교육참여 활동은 학교를 넘어서 마을교육에도 이어지고 있다. '넌나들이'라는 마을 자치 모임을 만들고 매월 마을장터와 사물놀이, 도자기 공예, 재활용 양말 공예 배움 교실을 열어 학교와 마을 주민, 아이들의 또 다른 교육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각 반의 반 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아이들의 인문학 동아리 '업고' 등의 운영을 지원하기도 한다.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며 배워가는 학부모는 회현초의 교육과정과 회현의 마을교육으로 이어져 함께 성장하고 있다.

< 아이들, 회현자치꽃을 피우다 >

2018년 12월에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과정 이야기 나눔에서 우리 아이들의 자치 문화로 자리 잡아온 다모임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 피아트 아이들 수가 15명(무학년제)이 넘는 상태에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된 것이다. 교사당 지도할 피아트 수를 늘리고 한 피아트당 아이들 숫자를 줄여 운영해 보자는 의견이 모아져 2019년 다모임은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처럼 교육공동체 누구나 의견을 내고 소통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회현초의 학교문화를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된다. 곧, 학교와 어른들의 자치문화가 아이들의 자치문화가 되는 것이다.



2019년 아이들의 자치꽃은 피아트모임꽃, 전교다모임꽃, 학생동아리꽃으로 피고 있다. 피아트모임꽃은 3월 입학식날 1학년과 6학년의 만남으로 시작된다. 3주 동안 점심먹기, 양치하기, 책읽어주기 활동 등을 통해 선배배간의 돈독한 소통의 길이 열리게 된다. 4월부터는 1~6학년 7-8명으로 구성된 피아트원(30개 피아트)이 함께 모여 다양한 미션 수행(보물찾기, 큰 보자기 제기, 도서관에서 작가의 책 찾아 읽어주기 등)과 의견 나누는 활동이 매월 이어지고 있다. 피아트이라는 말처럼 1-6학년 피아트끼리 형제자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전교다모임꽃은 작년 12월에 선출된 전교다모임임원 3명과 3월 첫주에 선출된 4~6학년 학급 다모임단 12명으로 구성되었다. 3월에 다모임단 역량캠프를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 다모임실에 모여 40분정도 정기회의를 한다. 전교다모임은 아이들의 의견을 토대로 '세월호 기억식'을 기획 운영하였으며, '사랑의 우산' 운영, 건의함 설치, 다섯가지 예쁜 몸짓 이어가기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학생동아리꽃'은 3-6학년이 운영하는 자생 동아리로 말처럼 스스로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아이들만의 동아리이다. 원하는 동아리를 개설하고 홍보를 통해 동아리원을 모아 연간계획과 활동 내용을 정해 동아리장을 중심으로 12개의 동아리가 운영중이다. 학교는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이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가지 예로 방송동아리에서 음악방송 활동을 기획하여, 현재 점심시간에 음악방송이 진행되고 있다.



나보다 우리, 우리보다 포부를 생각하는 “풍문초등학교”

1964년 4월 1일에 개교한 이래 50여 년 동안 훌륭한 인재들을 육성해 오면서 지역사회와 나라에 기여하며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바르고 건강하며 꿈과 끼를 가꾸는 행복한 학교'라는 비전을 가지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 교직원이 보람 있는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목표로 행복한 학생들이 모여 꿈을 가꾸고 따뜻한 감성을 채우며 소질을 계발하여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산 풍문초에서 행복한 꿈을 가꾸다.



아이들과 함께 감사를 표현하다

2019년 풍문초 학부모회는 마음에만 있는 친구에게 먹음직스러운 컵케익을 만들어서 손 편지와 함께 평소 서먹해하던 친구나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친구와 나누어 먹는 취지로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만족도가 전 학년 가장 높았던 쿠키클래스는 재료준비, 뒷정리 등 학부모님들의 손이 많이 필요해서 힘들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또한 학생회 임원들과 상의하고 소통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같이 진행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활동하였습니다.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교육하여 주시는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학부모교육에서 배운 풍선아트로 각 교실을 풍선으로 장식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쪽지를 작성하여 선생님들 모르게 첩보작전으로 늦은 시간에 설치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길에 박수갈채와 작은 꽃을 가슴에 달아 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영양사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뜻 깊은 날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해서 행복한 학부모님

학부모회 활동 중 가장 큰 행사로 부모님과 함께 할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중 매년 시티투어로 여러 곳을 둘러보아서 새로운 것을 생각하다가 영화단체관람을 진행하였습니다.

전학년들의 신청을 받아서 영화관을 대관하고, 영화를 선정하고, 간식을 준비하였는데 6월 7일 재량휴업일 당일 비가 와서 걱정했지만 불참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이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참석하여 군산 롯데몰 영화관에서 100명의 학생들과 부모들이 '알라딘'을 관람하였습니다.

아직 어린 저학년들은 처음으로 영화관 나들이도 하고, 고학년 학생들은 의젓하게 친구들과 간식을 먹으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관람 후에도 영화에 푹 빠져서 조잘조잘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귀가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의 길이 좁고 복잡하여 등하굣길에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되어서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일환으로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아람단, 학생경찰, 선생님, 교육청, 경찰서와 함께 메트로 1차 아파트 사거리에서 대대적인 교통안전에 관한 캠페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8시 이른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주셔서 확실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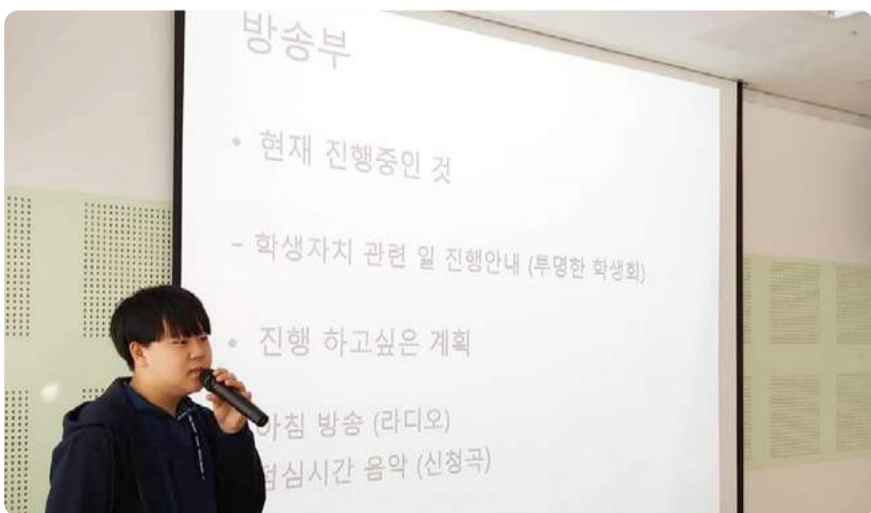
소소한 활동이지만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해주시는 선생님들과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는 학부모들이 풍문초 꿈나무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풍문초 소식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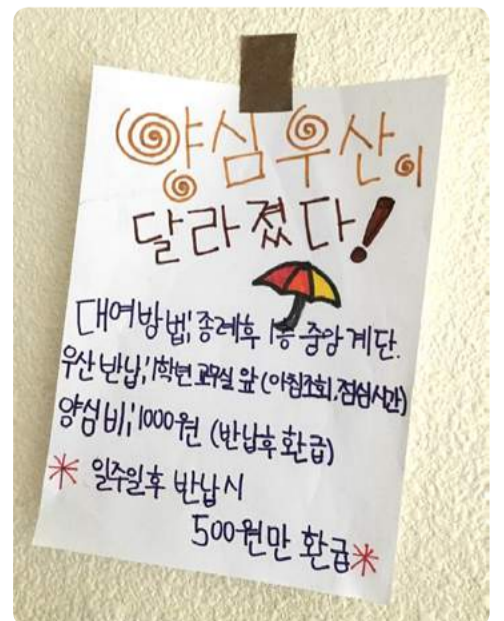
나를 찾아가고 남을 배려하며 함께 꿈꾸는 행복한 “제일중학교”

군산제일중에는 학생들을 위한 많은 활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2016년도부터 시작한 제일중 비즈쿨 동아리입니다. 비즈쿨의 뜻은 비즈니스(Business)'와 '스쿨(School)'의 합성어로 청소년들의 창업아이디어 개발과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창업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비즈쿨의 뜻에 맞게 제일중 비즈쿨 동아리는 학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재료를 준비하고 제작하여 판매까지 합니다. 현재 제일중 비즈쿨 동아리는 쉼표(학생들이 운영하는 카페)와 이플(향수 제작하여 판매), 모꼬지(아이돌 굿즈 상품 제작하여 판매) 등의 많은 창업 동아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판매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비즈쿨 동아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업카페 <쉼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군산제일중은 공부 말고도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군산제일중 학생회 활동입니다. 학생들 스스로 기획하고 학생들을 위한 많은 활동들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지원을 해주는 학교 덕분에 우리 학교 학생자치회활동은 바쁘답니다. 우리 학생회에서는 비가 오면 우산을 빌려주는 양심우산, 양심우산처럼 체육복을 빌려주는 양심체육복을 운영하고 있고 방향제 설치 등의 화장실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회에서는 스승의 날 행사, 모두 함께 4월 16일을 기억하기 위해 4.16 추모행사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페이스북 익명에스크(익명으로 학생회에 질문하면 학생회가 답변하는 시스템)으로, 오프라인으로는 건의함과 2학년 회장의 공약인 건의주간(한 주 동안 학년 게시판에 큰 종이를 부착하여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등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중 축제와 체육대회를 군산제일중 학생회가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각 반 모든 학급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모아서 그 해 학생들이 원하는 컨셉의 행사로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이렇게 군산제일중 학생들은 다양한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열정을
응원할게

공부 말고도 재미난 일이 많기 때문에 바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점점 성장하는 우리를 느끼며 행복한 군산제일중학교입니다.

- 군산제일중 학생회장 이현주 -

한들, 넓게 트인 들판에서 자라는 꿈

1. 한들고 현황

한들고등학교(교장 장용석)는 군산시 대야면에 위치한 전교생 166명, 교직원 34명의 아담한 학교입니다. 한들고가 위치한 대야는 너른 평야가 펼쳐진 곳입니다. 그 평야에는 작은 풀벌레부터 큰 나무까지 다양한 생명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야의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개개의 다채로운 모습은 한들고 학생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이 10% 이내부터 90%를 벗어나는 학생까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이 목표인 학생과 졸업 전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하루빨리 사회인이 되길 희망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관심 있거나 되기를 희망하는 분야도 공무원·여행가·사업가 등 다양합니다.

대야의 평야에는 바람도 많이 불니다. 그간 한들고도 여러 바람을 맞으며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상서로운 훈풍이 불어옴을 느낍니다. 한들인들은 불어오는 훈풍을 맞아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꿈꾸며 자신만의 오늘을 보냅니다. 나아가 차곡차곡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한들고라는 넓게 트인 들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 한들고 이야기

한들고는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재능을 찾고 진로를 설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들고는 2, 3학년 두 개 학년에 걸쳐 학생선택형 소수선택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임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과정에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이 있는 과목을 개설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문과정(국어, 영어, 수학), 예·체능과정(진로체육, 미술디자인, 실용음악), 직업과정(컴퓨터, 목공, 요리, 제빵, 한국의복구성)의 과목을 설 강하고 학생들은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일주일에 3시간씩 연강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은 수업의 전문성을 위해 내부교사와 외부 전문강사가 협력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와 조금 다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고처럼 국어, 수학, 한국사 등 교과 프로그램이 있고, 그 외에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으로 무료 개설해 운영합니다.

현재는 드론, 바리스타, 진로체육, 애니메이션 등 총 11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방과후에도 학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교과 공부에 매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특기적성을 선택한 학생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수업하면서 해당 분야에 눈을 뜨기도 하고, 자신의 진로로 정하기도 합니다. 실례로 바리스타 수업을 듣던 학생이 커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졸업 후인 지금도 바리스타를 준비하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중심 동아리 활동입니다. 한들고에서는 정규 시간인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시간이라도 가능한 외부 전문강사가 함께하며 동아리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내라는 틀을 벗어나는 이동형 창체를 시도해 지역사회의 관련 시설에서 활동합니다. 수영장, 축구장, 테니스장으로 이동하여 밀도 있는 동아리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아 그 영향이 자율동아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8개의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를 기반으로 9개의 자율동아리까지 운영되면서 해당 분야로 진학을 하는 학생, 관련 분야의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학생 등 여러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3. 한들고의 꿈

한들고는 올해로 혁신학교 5년차입니다. 걱정과 부담 속에서 시작했지만 각자의 꿈을 찾아 성실히 노력하는 학생들을 떠올려보면 참 많은 소득과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학부모와 더불어 교직원들도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새로운 목표와 미래지향적 비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들고등학교의 이름과 건물은 늘 그 자리에 그대로지만 행복한 교육공동체의 노력을 통해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변화,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의 터전으로 더욱 발전해 가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2019 군산교육지원청 학부모교육 교육후기

(진로교육) 부모는 지치고, 아이는 미치고 / 김민 강사



4월 4일(목) 오전 10시 3층 회의실에서 군산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부모는 미치고, 아이는 지치고!!>라는 주제로 전직 대통령 통역관이자 현재 동시통역사와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김민 강사를 초빙하여 자녀의 교육 및 가정 내의 소통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9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은파어머니합창단(지휘자 정수희)의 CM송 메들리로 밝고 활기찬 분위기가 조성되고, 주광순 교육장의 인사말로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었다. 수능 전국 3위, 고려대 수석 입학, 30대 대통령 통역관 등의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40세까지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는 강사는 자신이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아이들처럼 어머니의 아바타로 살아온 이야기와 자녀를 교육하면서 얻게 된 오류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여 학부모들의 공감을 얻었다. "최고의 소통= 경청"이고,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라면서 아이의 앞길을 밝게 비춰주고, 간섭없이 지켜봐주는 등대같은 부모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학부모기자단 송은주)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코딩과 Maker 교육 / 송정옥 강사



군산교육지원청은 서흥중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4월 15일~23일 4차례,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코딩과 MaKer교육>을 서흥중학교 3층 도서실에서 진행했다. 강사는 대한민국 메이커 운동의 시작, 전통 고가구 아두이노 미니어처 제작을 한 굿붐스쿨라 대표 송정옥 강사가 맡았다. 이 교육은 코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아두이노와 3D프린터와 3D펜으로 MaKer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귀한 시간이었다. "이 기술(코딩)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는 물론 조국의 미래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바마의 말처럼 현재 우리 아이들이 배워나가고 있는 기술(코딩)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고, 이 어려운걸 해내는 우리 아이들이 대견하기도 하였다. 매시간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작품 만들기에 집중하는 학부모들 모습에서 열정이 숨 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요즘 우리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을 부모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너무나 뜻 깊었다. (학부모기자단 이영숙)

(역사교육) 자녀에게 바람직한 역사교육 전라도 천년, 전북-전북인 / 이재운 교수



5월 16일과 23일 2회에 걸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에 새로 임명된 전주대 이재운 교수를 초빙하여 역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라도 천년을 기념한 이 역사 교육은 '자녀에게 바람직한 역사교육', '역사의식과 현실감각을 갖자'라는 주제로 진행 되었다. 학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우리나라의 역사 전라북도의 역사를 바르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역사를 알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역사의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의식과 정확한 역사에 대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재운 교수는 말하였다.

또 우리나라 주변국가인 중국,일본,북한과의 관계와 상호작용하는 역사적 현장을 이해하여야 하며 중국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에서 중국인들의 태도와 다양한 내용들을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학부모들에게 전달하여 만족도가 높은 역사 교육이었다.

전북인으로서 그동안 차별만 받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차별이 아니라 저항과 혁신을 했던 우리 선조들의 의식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고 전북인이라서 자랑스럽고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자랑스럽다는 자긍심과 애乡심이 강하게 생겼다. 이 날 모여 함께 강의를 들었던 학부모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좋은 교육은 2회 교육보다는 정기적인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전하기도 하였다. (학부모기자단 김미영)

“역사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대감각을 갖춘 외교가 필요하다.
우리도 모두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 ”

(성교육) 자녀와 공감하는 성교육 / 양소목 강사



5월 30일 10시 3층 회의실에서 “자녀와 공감하는 성(性)교육”이라는 주제로 양소목 강사님을 초빙하여 학부모 교육을 가졌다. 먼저 성교육시기는 언제부터인지를 물어보았는데 갓난아기때 부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성교육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되었다.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이야기로 성교육을 해야하고 성 접촉은 나의 마음과 상대의 마음 그리고 나의 삶과 상대의 삶을 엮는 종합적인 소통임을 강조하셨다.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라도 신체용어도 설명해 주고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몸의 주인은 '나' 라는걸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이성 교제 시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한 나의 선택을 YES/NO를 분명하게 말하고 표현하기를 거듭 강조하셨다. 이밖에도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유지를 위한 방법과 성교육에서의 유의점, 남녀 성 심리의 차이, 청소년기의 성, 청소년 성관계로 인한 피해 등등 강의를 듣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학부모들은 몰입이 되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학부모기자단 김선애)



청소년 비행의 이해와 진짜 어른이 되는 길 / 천종호 판사

군산교육지원청에서 “군산교육 성장교육 아카데미” 첫번째 순서로 천종호 판사님을 모시고 군산 아리울초에서 5월 31일 청소년 비행의 이해와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진짜 어른이라면 우리아이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지 진짜 어른이었던 판사님은 단호한 어조로 날카로운 질문을.. 간곡한 어조로 당부의 말씀을 전하면서 강의를 시작하였다. 천종호 판사의 질문중 학교폭력이 강도보다 위험한 이유가 있는데 학교폭력의 특징 세가지 관계성, 지속성, 공연성 세가지의 학교 폭력을 구분 짓는 특징들이 피해자의 삶을 피해하게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극단적인 대응을 하게 한다고 했다. 학교폭력을 ‘침소봉대’ 한다 여기지말고 자녀, 학생의 말에 귀기울여주고 충분히 들어주고. 여기서 이 세가지를 꼭 기억하고 물어봐 주시길 당부하였다. 또한 지속성이 있었는지 감을관계가 있었는지를, 덧붙여서 피해와 가해사실이 밝혀지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충분히 진술하게 하고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아픈마음을 충분히 듣게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본인이 지은죄에 대한 것은 엄벌을 내리는게 옳지만 다시 설수있는 기회를 주는것도 좋은 어른 몫이다. 강의를 듣고 우리 어른들이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 잘 자라서 제몫을 하는 어른이 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함께하는 공동체의식이 니아이 내아이 가르지말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강조 하시며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회현초 학부모 이수경)



(아버지교육) 아빠와 함께하는 숲 밭줄모험놀이 / 김창호 강사

6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 12시까지 임피중학교 내 숲속에서는 아빠와 함께하는 숲 밭줄 모험 놀이를 하였다. 밭줄 놀이 활동가 김창호 강사님을 모시고 20가족이 참여하였다.

처음이라 어색한 분위기를 동글게 모여 앉아 자연이름으로 소개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그리고 강사님의 밭줄 놀이 기구를 설치하는 설명을 듣고, 아빠들은 밭줄 매듭 짓는 기술을 진지한 모습으로 배웠다. 자연과 생명이 훼손되지 않게 우리 아이들은 흔들흔들 해먹, 떨어는 버마다리, 아빠가 밀어주는 외줄 그네, 놀이터 그네와는 다른 그네 다리, 집라인 등 신나는 밭줄 체험을 강사님의 지도에 따라 안전에 주의하며 활동에 참여했다. 고정 놀이터가 아닌 밭줄로 만든 숲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들은 안쓰는 근육을 쓰면서 균형 발달 인지 능력을 길렀다. 그리고 정해진 규칙 없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면서 책임감과 모험심이 생기는 의젓한 모습을 보였다. 숲 밭줄 놀이에 숨어있는 자연과 생태에 대한 깊은 철학과 사랑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학부모기자단 이주연, 한경진)



(독서교육) 어린이 책을 어떻게 읽을까 - 옛이야기와 동화, 소설 그림책과 영상매체 - 그림책과 만화의 매력 / 김중철 작가

6월 13일과 20일 2회에 걸쳐 아동문학 기획가이면서 전래동화 작가로 활동 중인 김중철 작가의 독서교육을 실시하였다.

‘어린이 책을 어떻게 읽을까?’, ‘그림책과 만화의 매력’이란 주제로 진행 되었고 그림책의 본질은 어린이들이 지식을 재미있고 쉽게 습득하여 어른의 틀, 즉 언어습득이나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빠르게 배워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림책의 시초가 된 영국에서 발간된 ‘피터래빗’의 내용을 먼저 이야기 해주었고 피터래빗이 외국의 정서에 어울리는 동화라면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동화책은 ‘팔이 영감과 우르르산 토끼’ 이라고 소개도 해주었다. 이 두 권의 동화에서 주는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이 두 동화를 어린이 입장이 되어 동화를 다시 해석하여 설명하였는데 외국의 정서와 우리나라의 정서가 다름이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우리 옛이야기가 새삼 재미있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또 최근 영상매체의 노출이 많아 우리 아이들도 책으로 보는 그림책을 접하기보다 어린나일부터 영상을 통한 그림책을 많이 접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하였다. 그림책을 엄마,아빠와 함께 보면서 부모의 육성으로 읽어 주는 것이 아이와의 교감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지고 그림책을 더 좋아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하여 말하였다.

부모들이 먼저 아이에게 어떤 책을 어떻게 읽힐까 하는 고민을 하여 좋은 책을 선정하고 그 책을 어떻게 읽힐까를 고민하는 현명한 부모들이 되기를 바라는 작가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교육이었다. (학부모기자단 임채린)



(경제교육) 자녀와의 위험한 소통수단, 돈! / 이재민 교수

7월 11일 목요일 3층 회의실에서 ‘자녀와의 위험한 소통 수단, 돈’이란 주제로 웅지세무대학교 행동경제학 교수 이재민 강사의 학부모 경제교육을 진행하였다. 그 어느 교육 보다도 참여가 많았던 이번 교육은 먼저 돈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무엇인가? 돈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우리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라는 주제의 교육이나 고민보다는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과 고민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 이런 현실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학부모들의 관심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편하게 돈을 벌어서 풍요롭게 살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지 않은지 한 번 되돌아 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또한 이재민 교수는 돈의 의미와 가치를 부모가 먼저 알고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 보라고 권유했다. 돈으로 아이를 유인하지 말고 의미를 담아 선물하라고 하였으며 아이에게 열심히 공부하는 조건, 성적이 오르는 조건, 집안일을 돕는 조건, 아이를 조절할 목적으로 하는 돈 거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고 돈으로 보상하게 되면 결국 아이의 자발적인 동기를 꺾게 되니 보상이나 댓가보다는 부모의 마음을 담은 글과 함께 선물을 함으로써 성취감과 감사를 맛보게 하라고 하였다. 이번 경제교육은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과 평소 소통의 수단이라고 여겨온 돈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보다도 한층 더 깊고 넓은 경제적 관념 인문학을 웃음소리 끊이지 않을 정도로 재미있게 공감하며 들었던 것 같아 그 의미가 크다. (학부모기자단 김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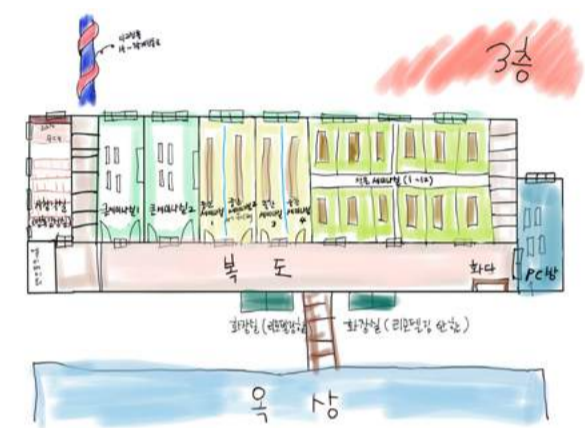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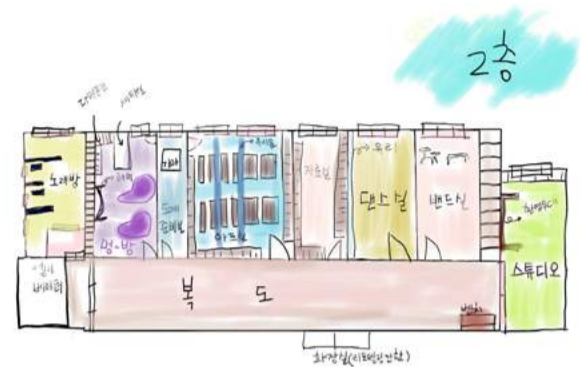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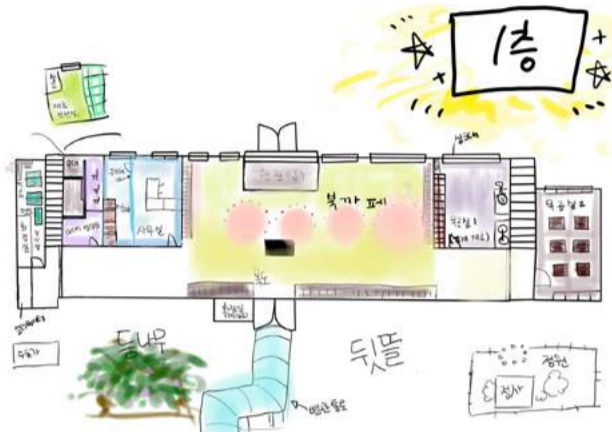
2019 제5회 군산지역 청소년 200인의 원탁 토의가 7월 11일 군산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성산초등학생, 군산시 중·고등학생과 20여 명의 지역 내 교사·학부모가 모여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한 토의가 진행 되었다.

군산교육지원청 이성기(교육지원과) 과장은 "오늘 이 자리가 군산의 희망,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고, 군산고등학교 조두성 교장은 "배려하는 의견을 통하여 민주적인 결정을 이끌어 내는 토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진행자는 "평소 마음속의 말을 하고 갈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원탁토의 개최를 선언하였다.

이번 5회차를 맞은 군산지역 청소년 200인의 원탁토의 주제는 '인권과 교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으로 정해졌고, 각 원탁에서 키워드를 적어 두 시간 가량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200인의 원탁토의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지난 제4회 200인의 원탁토에서 나온 정책 제안 중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자치배움터 건립과 시청의 인재양성과를 교육지원과로 바꾸는' 등 적극 반영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산시 청소년들이 이뤄 낸 기적 같은 **선물**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가칭)



일러스트 ▶ 회현중 남이랑 학생
설계 ▶ 군청학연 학생들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가칭)는 군산교육지원청에서 먼저 만들어 준 공간이 아니라 제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아이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여느 배움터와는 또 다른 큰 의미가 있으며, 2014년 학생자치에 관심이 있는 지역의 학생들의 소모임을 시작으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학생, 교사, 학부모 100인, 200인이 모여 원탁회의를 진행하며 성장해 온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들어 낸 기적 같은 공간이기도 하다.

이제 올해 12월에 개관 예정중인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는 편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쉼),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공간(배움), 사람들과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공간(사람), 자신에 대해 탐색하고 꿈을 위해 도전해 보는 공간(꿈), '함께'와 '혼자'가 배려받는 공간(공동체)으로 활용 되어질 예정이다.

지난 5년여 동안 교사 자녀들의 교육 보다 군산시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며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며 이끌어 준 유경아 교사의 많은 교사분들에게 큰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한다. 더불어 오랜 시간동안 학생자치의 공간만을 꿈꾸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려 비로소 이뤄 낸 대견한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도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

